



겨울 재촉 비 광주·전남지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간간히 내린 3일 오후 단풍색으로 옷을 갈아 입은 전남대학교 메타세쿼이아 길에 우산을 쓴 학생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형일자리 극적 타결 기대감 고조

이용섭 시장 “오늘께 향후 일정 제시 가능” 발언
정부 최고위층 6일 내광설...이견 조율 임박 전망

현대차와 진행 중인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판 극적인 타결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4일께 향후 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용섭 시장의 발언에 이어 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6일 내광설까지 더해지면서 내부적으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 예산 처리 전까

지 현대차와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직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4일쯤에는 향후 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협상 당사자들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날짜 등을 매우 구체화한 것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

고 있다.

협상단은 지난달 27일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으면서 현대차와 협상에서 한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요구에 맞춰 현장에서 즉각 이견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력 자체가 크게 높아진 상태다.

협상 여건이 이처럼 바뀌면서 협상단과 현대차 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극적인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도 오는 6일 정부 최고위층 관계자의 광주방문설이 나오면서 협상 타결 임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7일까지

예정된 예산안 처리일까지 현대차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단은 예산 처리일까지 투자협약서(안)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4일까지 어떻게든 현대차와의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와 합의되면 이번 주 내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승인을 받고 이르면 6일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막바지에 왔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노동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올 광주전남 실업급여 3,000억...기금 불균형 우려

10월 지급액 319억 연중 최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소진된 고용기금이 3,00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실업을 증가로 적립되는 고용기금은 크게 줄어들고, 반면 실업급여 신청률은 급증하고 있어 지역 내 고용기금 불균형 현상이 우려된다.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당초 올해 실업급여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 금액은 전국적으로 6조 1,572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올해 실제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급여는 6조 5,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 377억원으로 집계돼 월 평균 5,59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광주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164억 9,8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2%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165억 3,300만원 이후 연중 최대치의 증가율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지역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1,46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43억원과 비교해 32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전남지역 실업급여 지급액도 154억 200만원으로 1년전보다 45.0%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남지역 실

업급여 지급액은 1,443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316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10월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319억 3,500여 만원으로, 10월 현재까지 2,912억 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광주지역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69.0%·72.8%·69.4%로 시 단위 광역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 전남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64.0%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는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판매부진과 내수침체 등의 여파로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급감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속히 늘면서 고용보험 기금 고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 제도가 바뀌면

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올해 이미 고용보험금의 수입 규모보다 지출액이 예산을 초과했다는 진단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당장 내년부터 고용보험 보험료를 인상 추진하고 있으나, 상위 법을 개정할 경우 오히려 업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기금 건전성 강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수영 기자

광주 아파트 올해 평균 청약률 35.80:1

전년비 72%↑ ...골드클래스 내년 700세대 분양 계획

올해 광주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하면서 일반 분양 등 청약률이 35.80:1을 기록했다.

3일 광주·전남 부동산 포털 사랑방 부동산(home.sarangbang.com)에 따르면 올 1~11월 광주지역에서 분양에 나선 지역 아파트는 9개 단지·5320세대로, 이 중 조합원 분양분 등을 제외한 1500세대에 대해 청약 접수를 받았다.

아파트별로는 ▲북구 점단 진아리채(750세대 중 221세대)를 시작으로 ▲북구 각화동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888세대 152세대) ▲남구 주월 양우내안에(594세대 중 25세대) ▲서구 상

무 양우내안에(353세대 중 59세대) ▲남구 지석동 일진 스위트포레(347세대 중 320세대) ▲남구 백운 코아루 아펠리스힐(197세대 중 161세대) ▲동구 계림 3차 두산위브(908세대 중 367세대) ▲북구 금남로 대광로제비양(519세대 중 88세대) ▲광산구 상용에가 플래티넘(764세대 중 107세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지난 7월 분양한 상무 양우내안이었다. 단지는 59세대 청약 순위 접수에만 5917명이 신청했다. 이로 인해 10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계림 3차 두산위브

(86.34대 1), 금남로 대광로제비양(45.49대 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광주지역 올해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급증한 것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연평균 6200여세대가 분양한 데 비해 올해는 1500세대에 그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광주 분양물량은 2013년 3432세대에서 2014년 7367세대·2015년 5028세대·2016년 7874세대·2017년 7121세대 등 연평균 6200여 세대로 조사됐다.

사랑방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 내 기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량이 적어 신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역 시공능력 1위를 기록한 보광종합건설은 내년 서구화정동과 남구 방림동에 각각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 등 모두 700세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친환경쇼핑 남도장터

남도장터는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한곳에서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전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국 1위

전남은
국내유일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

전남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1번지

검색창에 **남도장터** 검색

www.jnmall.kr